

창의, 실용, 현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선진일류경제 구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09.9.8 (화) 16:00부터 (통신, 방송, 인터넷 : 국제엠바고)		
배포일시	2009.9.8(화) 14:00	담당부서	경제정책국 경쟁력전략팀
담당과장	이대희 (2150-2870)	담당자	이나원 사무관 (2150-2873)

※ WEF 국내 협력기관: KAIST경영대학(담당자: 성유진, 958-3244)

제목: 200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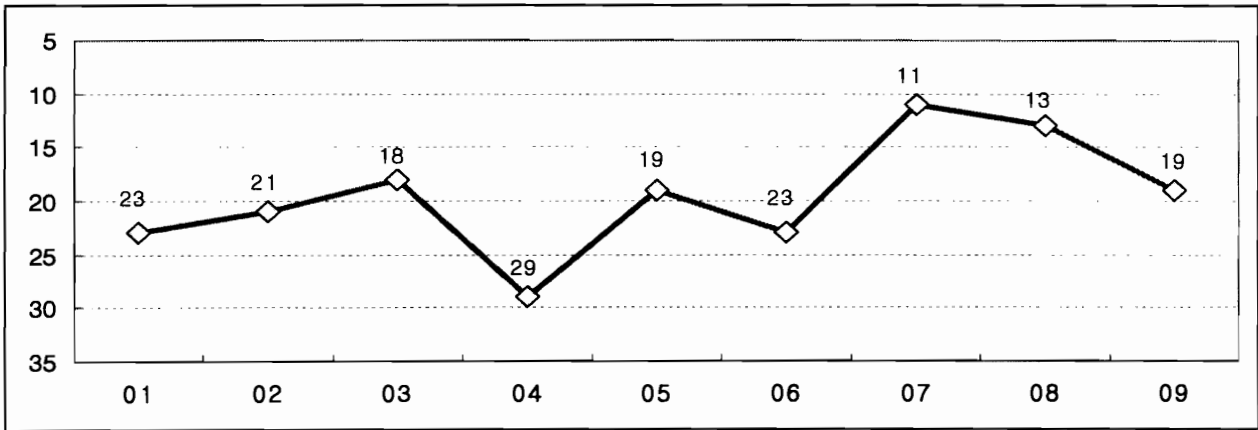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WEF(World Economic Forum)의 '09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단계 하락한 19위 기록((‘08)13위/134개국→(‘09)19위/133개국)

* '0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전년보다 4단계 상승((‘08)31위/55개국→(‘09)27위/ 57개국)

<우리나라 WEF 국가경쟁력 추이>



□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1위를 기록(전년도 2위)

○ 미국은 거시경제 안정성(66→ 93위)과 금융 시장 성숙도(9→ 20위) 등의 순위하락으로 1위에서 2위로 하락

○ 아시아 국가 中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 일본이 8위, 중국이 29위를 차지

* 홍콩: 11위, 대만: 12위, 말레이시아 : 24위, 태국 : 36위

< WEF 국가경쟁력 10위권 국가 >

스위스	미국	싱가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1(2)	2(1)	3(5)	4(4)	5(3)	6(6)	7(7)	8(9)	9(10)	10(8)

* ()안은 2008년도 순위

※ 관련 영문자료는 WEF 홈페이지(www.weforum.org/gcr)에서 검색 가능

- 우리나라의 평가항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본요인**(16→ 23위),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16위) **소부**문에서 **하락**

< 부문별(3대부문, 12개 세부부문) 순위변화 >

전체 순위	기본요인(16→23위)					효율성 증진(15위→20위)						기업혁신 및 성숙도 (10위→16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 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구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06	23	42	23	5	34	21	28	47	49	12	14	23	14
07	11	26	16	8	27	6	16	24	27	7	11	9	8
08	13	28	15	4	26	12	22	41	37	13	13	16	9
09	19	53	17	11	27	16	36	84	58	15	12	21	11

- **기술수용 적극성**(15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1위) 등이 강점 요인

* 조사항목 중 강점: 이자율 스프레드(4위), HIV환자비율(1위), 고등교육 진학률(1위), 국내·외 시장규모(13위, 6위), 발병특히 건수(5위) 등에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노동시장 효율성**(84위), **금융시장 성숙도**(58위), **제도적 요인**(53위)을 등을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

* 조사항목 중 약점: 노사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은행 건전성(90위) 은행대출 용이성(80위), 정책에 대한 인지도(100위) 등 항목에서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

<참고 : WEF 국가경쟁력 평가>

- WEF(World Economic Forum)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기관으로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서 발표**(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 1995년까지 IMD와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나, 1996년부터 독자 발표
- WEF는 국가경쟁력을 '지속적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케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요소'로 정의
- 2009년 평가는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체계하에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부문, 12개 세부부문, 110개 항목** (통계 32개, 설문 78개)에 대해 평가

I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상승·하락요인 분석

기본요인(16위→23위 : 7위 ↓) : 4개 세부부문

① '제도적 요인' 부문(28위→53위): 약점분야

- 노동시장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부문으로 19개 평가항목 모두 순위 하락
- 정부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100위), 정부규제 부담(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67위) 등이 주요 약점

② '인프라' 부문(15위→17위): 강점분야

- 항만운송 인프라(36위) 부분의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 도로·철도·항공·전력 등 나머지 부분의 경쟁력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
- * 철도 인프라 질(8), 도로 인프라 질(14위), 항공인프라 질(21위), 전력공급의 질(21위)

③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4위→11위): 강점분야

- 전체 순위는 하락하였으나 인플레이션(40→34위)은 작년보다 개선되었고, 나머지 평가항목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 * 이자율 스프레드(3→4위), 재정수지(30→28위), 국가저축률(29→30위), 정부부채(40→42위)

④ '보건·초등교육' 부문(26위→27위): 약점분야

- HIV환자 비율이 강점요인이며 전년과 같이 1위로 평가
- 말라리아(80위)·결핵발병률(83위),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76위), 교육비 지출(75위) 등이 상대적 약점요인으로 지적

효율성 증진(15위→20위 : 5위 ↓) : 6개 세부부문

① '고등교육 및 훈련' 부문(12위→16위): 강점분야

- 고등교육 진학률(1위),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4위), 수학·과학교육 수준(18위) 등이 강점요인
- 교육시스템의 질(47위), 경영대학(원)의 질(44위), 전문연구·훈련서비스 이용 가능성(35위) 등은 약점요인

② '상품시장 효율성' 부문(22위→36위): 약점분야

- 고객지향도(15위), 구매자 성숙도(15위)는 강점으로 지적
- 농업정책의 사회적 비용(96위), 평균관세율(86위), 조세효율성(72위)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③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41위→84위): 약점분야

- 12개 부문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부문으로 노사간 협력(131위), 해고비용(109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등에서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

④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37위→58위): 약점분야

- 노동시장 효율성 부문과 함께 전년에 비해 순위가 크게 하락한 부문으로 자본조달과 관련한 부문의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
 - * 은행대출의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국내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 은행건전성(90위)·자본이동에 대한 규제(78위) 등도 지속적으로 약점 요인으로 지적

⑥ '기술 수용 적극성' 부문(13→15위): 강점분야

- 광대역 인터넷가입자(7위), ICT 관련 법규 구비 정도(7위), 인터넷 이용자 수(9위) 등은 강점요인
- 이동통신 가입자(61위), FDI에 의한 기술 이전(28위) 등은 약점요인

⑦ '시장규모' 부문(13위→12위): 강점분야

- 해외시장 규모(6위)과 국내시장 규모(13위) 모두 강점요인으로 평가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16위 : 6위 ↓) : 2개 세부부문

① '기업활동 성숙도' 부문(16위→21위): 약점분야

-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13위),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17위) 등이 강점요인
- 직원에 대한 권한위임(74위), 물품·서비스 국내공급자의 효율성(38위) 등은 약점요인

② '기업혁신' 부문(9위→11위): 강점분야

- 발명특허건수(7위), 기업의 R&D 투자(10위) 등 평가항목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정부의 고급기술 제품 구매 적극성(2→15위)·산학연구 협력(12→24위) 등은 작년과 비교하여 순위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큼

III. 평가 및 시사점

- 2009년 우리나라의 WEF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13→19위)은 설문조사 항목의 순위하락에서 주로 기인
 - WEF 국가경쟁력 지수는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경쟁력 순위 변화 폭이 큼
 - * WEF 국가경쟁력 평가시 사용되는 전체자료 중 설문조사의 비중이 2/3 (전체 110개 항목 중 78개 항목)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연도	03	04	05	06	07	08	09
IMD	32	31	27	32	29	31	27
WEF	18	29	17	23	11	13	19

- 올해의 전체 순위 하락에도 설문조사 항목의 변동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됨
 - * 통계자료 항목은 평균 1.5단계 하락한 반면, 설문조사 항목이 평균 16.5단계 하락
- 설문조사 항목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조사 당시('09.2~5월)의 경제·사회 상황 악화가 3대 약점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 효율성 하락) 경기침체, 비정규직법 시행시기 임박 등으로 노사 관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관련 답변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 관련 항목 변동: 노사간 협력(95→131위),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등이 큰 폭으로 하락
 - (금융시장 성숙도 하락) 경제 위기 이후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 금융시장 성숙도에 대한 평가 하락으로 연결
 - * 관련 항목 변동: 은행대출 용이성(26→80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16→64위),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11→38위), 은행 건전성(73→90위) 등이 하락
 - (제도적 요인 하락) 경기 침체 영향으로 규제에 대한 주관적 부담이 커지고, 정치가·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 제도적 요인의 순위 하락
 - * 관련항목 변동: 정부규제 부담(24→9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33→70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25→67위) 등이 큰 폭으로 하락

- 통계자료 항목은 대체로 작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노동시장 효율성 항목과 상품시장 효율성 항목이 하락
 - * 관련항목 변동: 노동시장(고용의 경직성(65→92위)), 상품시장 효율성(창업시 행정절차(75→85위), 창업소요시간(36→49위))
 - **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2년)이 고용경직성 순위 하락의 주요원인으로 작용, 창업관련 부문은 개정된 상법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순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WEF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상기 3대 약점분야(노동시장·금융시장·제도적 요인)의 비효율 제거가 중요하다고 지적
 -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 WEF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법이 국회 계류 중인 사실을 지적
 - 금융시스템 개혁은 97년 이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
 -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행정 분야의 Red-Tape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참고> '09년 IMD 국가경쟁력 지수와 WEF 지수가 차이나는 원인

- 설문조사 항목 반영비율 차이(WEF가 IMD의 약 2배)
 - (IMD) 설문조사 항목이 전체의 1/2이고, 가중치가 0.55(통계자료는 1)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반영비율은 전체의 약 1/3 수준
 - (WEF) 설문조사 항목의 반영비율이 전체 2/3 수준(가중치 동일)
- 설문조사 항목의 차이
 - * (예) '09년 WEF 평가에서 순위가 크게 하락한 고용 및 해고관행(45→108위), 정책변화에 대한 이해 정도(44→100위), 정부 정책·계약의 중립성(22→65위) 등은 IMD에서는 평가 항목이 없음
- 설문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 발생 가능성
 - IMD 설문조사는 2월에, WEF 설문조사는 5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5월의 경우 비정규직법이 쟁점화 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09. 1/4분기 경제성과가 발표되면서 경제상황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참고 1

WEF 세계경쟁력 평가 개요

□ WEF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

- WEF(World Economic Forum)는 매년 1월 Davos 포럼을 개최
 - 세계 각국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인 등이 보건·환경 등 전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 WEF 내의 세계경쟁력 네트워크(Global Competitiveness Network)는 매년 13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
 -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5개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가중치를 달리하여 평가

※ 우리나라는 2007년도 이후 3년 연속 혁신 주도 경제로 분류

단계	1인당 국민소득	단계별 가중치(%)
1단계 (요소 지향 경제) : 43개국	2,000\$ 미만	기본요인(60), 효율성 증진(35), 기업혁신 및 성숙도(5)
중간단계 (1단계 → 2단계) : 16개국	2,000~3,000\$ 미만	국가별 상이
2단계 (효율성 증진 경제) : 27개국	3,000~9,000\$ 미만	기본요인(40), 효율성 증진(50), 기업혁신 및 성숙도(10)
중간단계 (2단계 → 3단계) : 15개국	9,000~17,000\$ 미만	국가별 상이
3단계 (혁신 주도 경제) : 33개국(한국 포함)	17,000\$ 이상	기본요인(20), 효율성 증진(50), 기업혁신 및 성숙도(30)

□ 경쟁력 평가지수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분야로 구분되고 각 분야는 2~6개 부문으로 다시 구분되어 총 12개 부문 110개 항목(통계 32개, 설문 78개)로 구성

(단위 : 개)

분야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부문	통계	제도적요인, 인프라	14	고등교육 및 훈련	17	기업활동 성숙도	1
	설문	등 4개 부문	29	등 6개 부문	34	등 2개 부문	15

* 통계자료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 설문조사는 국가별 협력기관(한국은 KAIST)에 의뢰하여 조사

참고 2

세부항목별 강점·약점 요인

- ※ 강점요인은 국가평균 순위(19위)보다 순위가 높은 항목이고, 약점요인은 그보다 낮은 순위 항목으로 실제 경쟁력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음
- ※ * 표시된 항목은 통계자료, 나머지는 설문조사

□ 기본요인(16→23위, 7 ↓)

① 제도적 요인(28위→53위, 25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약점	재산권 보호	48	39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	100	44
	지적재산권 보호	41	26	테러위협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64	65
	부패로 인한 공공자금의 유용정도	46	27	범죄 및 폭력이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51	42
	정치인에 대한 신뢰	67	25	조직범죄가 기업비용에 미치는 영향	48	43
	사법부 독립성	58	45	경찰 서비스 신뢰성	43	31
	정부정책·계약의 중립성 정도	65	22	기업경영윤리	48	27
	정부지출의 시장기능 보완 적절성	70	33	회계기준 및 검사 강도	58	36
	정부규제 부담	98	24	기업 이사회 의 유효성	57	18
	법체계의 효율성(논쟁해결측면)	62	38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73	37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측면)	69				

② 인프라(15위→17위, 2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도로 인프라의 질	14	13	여객기 운송 능력*	18	19
	철도 인프라의 질	8	7			
약 점	전체 인프라의 질	20	18	전력공급의 질	21	21
	항만운송 인프라의 질	36	29	전화선 공급*	23	17
	항공운송 인프라의 질	21	26			

③ 거시경제 안정성(4위→11위, 7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이자율 스프레드(예대금리차)*	4	3			
약 점	재정수지*	28	30	인플레이션*	34	40
	국가 저축률*	30	29	정부부채*	42	40

④ 보건 및 초등교육(26위→27위, 1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HIV 환자비율*	1	1			
약 점	말라리아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76	85	영아 사망률*	26	31
	말라리아 발병률*	80	72	기대수명*	25	22
	결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51	76	초등교육의 질	29	20
	결핵 발병률*	83	83	초등학교 취학률*	21	24
	HIV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45	60	교육비 지출*	75	71

□ 효율성 증진(15위→20위, 5 ↓)

①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12위→16위, 4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고등교육 취학률*	1	3	수학·과학교육 수준	18	11
	학교에서의 인터넷 접근도	4	5			
약 점	중등교육 취학률*	31	35	경영대학(원)의 질	44	30
	교육시스템의 질	47	29	전문연구, 훈련 서비스 이용 가능성	35	20
	기업의 직원훈련 투자	29	10			

② 상품시장 효율성(22위→ 36위, 14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고객 지향도	15	13	구매자 성숙도	15	10
약 점	시장 경쟁의 강도	39	49	농업정책의 사회적 비용	96	38
	시장 지배(독점)의 정도	65	26	통관절차의 효율성	75	39
	반독점 정책의 효율성	31	23	평균관세율*	86	99
	조세의 효율성	72	31	외국인 기업소유에 대한 제한	62	54
	총 조세율*	35	33	FDI 규제의 기업활동에의 영향	65	51
	창업시 행정절차*	85	75	무역장벽 정도	42	18
	창업 소요시간*	49	36			

③ 노동시장 효율성(41위→ 84위, 43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약 점	노사간 협력	131	95	보수 및 생산성	28	14
	임금결정의 유연성	38	43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42	42
	고용의 경직성*	92	65	고급인력 해외유출정도	36	33
	고용 및 해고관행	108	45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89	80
	해고비용*	109	108			

④ 금융시장 성숙도(37위→ 58위, 21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약 점	금융시장 성숙도	57	35	투자자 보호정도*	55	50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용이성	38	11	은행 건전성	90	73
	은행대출의 용이성	80	26	증권거래관련 규제	55	31
	벤처자본의 이용가능성	64	16	법적 권리 지수*	36	52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78	65			

⑤ 기술 수용 적극성(13위→15위, 2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	15	15	PC 보급*	17	20
	ICT 관련 법규 구비 정도	7	2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	7	4
	인터넷 이용자 수*	9	8			
약 점	첨단기술 이용가능성	24	22	이동통신 가입자 수*	61	47
	FDI에 의한 기술 이전	73	28			

⑥ 시장 규모(13위→12위, 1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국내시장 규모*	13	14	해외시장 규모*	6	9

□ 기업혁신 및 성숙도(10위→ 16위, 6 ↓)

① 기업활동 성숙도(16위→ 21위, 5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국제시장 경쟁우위의 원인	17	13	수출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13	12
약 점	물품·서비스 국내 공급량 충분정도	25	23	생산공정의 기술적 성숙도	21	17
	물품·서비스 국내공급자의 효율성	38	29	기업마케팅 활동의 성숙도	30	20
	기업 클러스터 조성 정도	23	8	기업의 직원에 대한 권한 이양정도	74	26
	국제물류 및 마케팅의 내국기업 점유도	24	12			

② 기업혁신(9위→ 11위, 2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09	08		09	08
강 점	기업의 혁신능력	15	9	정부의 고급기술 제품 구매 적극성	15	2
	기업의 R&D 투자	10	7	발명특허건수*	5	7
약 점	과학연구기관 수준	22	14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용이성	25	19
	산학연구 협력	24	12			

참고 3

2009년 WEF 세계경쟁력 국가별 순위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	스위스(2)	32	브루나이(39)
2	미국(1)	33	스페인(29)
3	싱가폴(5)	34	사이프러스(40)
4	스웨덴(4)	35	에스토니아(32)
5	덴마크(3)	36	태국(34)
6	핀란드(6)	37	슬로베니아(42)
7	독일(7)	38	바레인(37)
8	일본(9)	39	쿠웨이트(35)
9	캐나다(10)	40	튀니지(36)
10	네덜란드(8)	41	오만(38)
11	홍콩(11)	42	푸에르토리코(41)
12	대만(17)	43	포르투갈(43)
13	영국(12)	44	바베이도스(47)
14	노르웨이(15)	45	남아프리카(45)
15	호주(18)	46	폴란드(53)
16	프랑스(16)	47	슬로바키아(46)
17	오스트리아(14)	48	이탈리아(49)
18	벨기에(19)	49	인도(50)
19	한국(13)	50	요르단(48)
20	뉴질랜드(24)	51	아제르바이잔(69)
21	룩셈부르크(25)	52	몰타(52)
22	카타르(26)	53	리투아니아(44)
23	아랍에미리트(31)	54	인도네시아(55)
24	말레이시아(21)	55	코스타리카(59)
25	아일랜드(22)	56	브라질(64)
26	아이슬란드(20)	57	모리셔스(57)
27	이스라엘(23)	58	헝가리(62)
28	사우디아라비아(27)	59	파나마(58)
29	중국(30)	60	멕시코(60)
30	칠레(28)	61	터키(63)
31	체코(33)	62	몬테네그로(65)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63	러시아(51)	99	나이지리아(94)
64	루마니아(68)	100	탄자니아(113)
65	우루과이(75)	101	파키스탄(101)
66	보츠와나(56)	102	수리남(103)
67	카자흐스탄(66)	103	베냉(106)
68	라트비아(54)	104	가이아나(115)
69	콜롬비아(74)	105	에콰도르(104)
70	이집트(81)	106	방글라데시(111)
71	그리스(67)	107	레소토(123)
72	크로아티아(61)	108	우간다(128)
73	모로코(73)	109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07)
74	나미비아(80)	110	캄보디아(109)
75	베트남(70)	111	카메룬(114)
76	불가리아(76)	112	잠비아(112)
77	엘살바도르(79)	113	베네수엘라(105)
78	페루(83)	114	가나(102)
79	스리랑카(77)	115	니카라과(120)
80	과테말라(84)	116	코트디부아르(110)
81	잠비아(87)	117	몽골(100)
82	우크라이나(72)	118	에티오피아(121)
83	알제리(99)	119	말라위(119)
84	마케도니아(89)	120	볼리비아(118)
85	아르헨티나(88)	121	마다가스카르(125)
86	트리니다드 토바고(92)	122	타지키스탄(116)
87	필리핀(71)	123	키르기스공화국(122)
88	리비아(91)	124	파라과이(124)
89	온두라스(82)	125	네팔(126)
90	그루지야(90)	126	동티모르(129)
91	자메이카(86)	127	모리타니아(131)
92	세네갈(96)	128	부르키나파소(127)
93	세르비아(85)	129	모잠비크(130)
94	시리아(78)	130	말리(117)
95	도미니카공화국(98)	131	차드(134)
96	알바니아(108)	132	짐바브웨(133)
97	아르메니아(97)	133	부룬디(132)
98	케냐(93)		

* ()안은 '08년도 순위임